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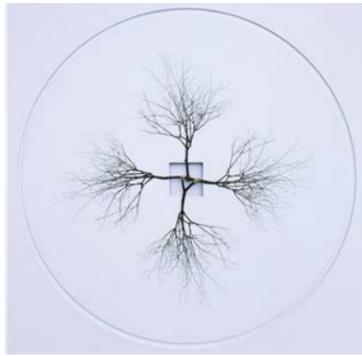


↑ 김장혁작



↑ 김경렬작

김관수작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미술

전주현대미술관서 8월 25일까지 기획전시

전주현대미술관(관장 이기홍)은 오는 8월 25일까지 2020 제6회 여름 기획전 ‘포스트코로나 시대 미술, 재앙을 넘어서’를 진행한다.

이번 기획전에 참여하는 작가는 김관수, 김근중, 김경렬, 김원, 김춘선, 김태희, 박성식, 박은애, 이경희, 서홍석, 허은영, 박혜경, 김장혁, 이승, 이택구 등이다.

전주현대미술관 관계자는 “오랜 휴관으로 휴면상태에서 작가들도 깨우고 미술관도 깨어나고자 코로나-19로 인해 힘들게 살아가는 도시

민들에게 문화예술로 정신적 위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어려운가운데 전시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수도권에서 활동하는 작가와 전북출신 김관수, 김장혁, 서홍석 작가와 전주에서 활동하는 김춘선, 이택구 포함 현대미술의 다양한 장르로 작업하는 15명의 작가들의 전시회”라고 강조했다.

전주현대미술관에 따르면 현대미술의 주제와 작품에 사용한 재료와 기법이 다양하다. 우선

나무오브제와 사진기법과 선 드로잉으로 연출된 초감각적 작품을 선보인 김관수 작가는 30대 초반에 베니스 비엔날레에 초대된 작가이며, 동양적 사과의 레이어 기법으로 신비로운 공간을 연출한 이승 작가, 물감을 짜내는 기법으로 가로와 세로의 선을 그어 독특한 형상을 표현한 김태희 작가, 상호대립적이며 의존적인 요소들에 기반을 두고 결합해 하나의 구성을 이루는 작업을 보여주는 김춘선 작가, 마지막으로 연필과 오일로 버무려진 사실적 표현 기법으로 삶의 의지와 자태를 고백으로 표현한 김경렬 작가 등이다.

/장은성 기자

군산근대역사박물관, 내달 5일까지 사진동인 ‘포커스-99’ 정기 전시회

작가 15명, 작품 30여점 선보

사진동인 포커스-99가 전시회를 개최하며 군산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은 오는 7월 5일까지 박물관 1층 시민갤러리에서 사진동인 ‘포커스-99’ 팀의 정기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포커스-99팀은 지난 1999년 군산시민회관 사진반 수료생들이 모여 결성한 이후 현재까지 20회 회원전을 개최하고,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 웨딩사진 및 가족사진, 장수사진 촬영 등 재능기부 활동을 펼쳐온 군산의 대표적인 사

진 동호회로 연초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시민갤러리 참가자 공개모집을 통해 전시 참가 협약을 맺었다.

이번 전시에서는 15명의 참여작가가 지역 곳곳을 다니면서 담은 낯익은 군산의 풍경과 여행 사진을 중심으로 향토적 서정성을 엿볼 수 있는 작품 30여점을 선보인다. 작품 속에는 선유도, 비응도, 은파 유원지, 짚보산항 등 군산의 명소들이 다양한 기법으로 개성있게 표현되어 있어, 군산을 찾는 관람객은 물론 군산시민들에게도 재미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박물관 1층의 시민갤러리는 시민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군산시의 문화에

술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마련된 공간”이라며 “연초 전시 참여 공모를 통해 확정된 다양한 장르의 전시 추진으로 관람객들에게 특화된 문화예술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2020년 도에도 회화, 공예, 사진, 캘리그래피, 설치 미술 등 군산 예술인들의 작품 전시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산근대역사박물관 1층 시민갤러리는 매년 초 군산 시민 및 단체를 대상으로 전시참여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연중 전시계획을 확정하며, 선정된 전시 참여자에게는 전시 기회와 함께 리플렛을 포함한 홍보물을 제작 지원한다.

/군산=김관문 기자

아이들을 위한 ‘국악 나들이’

국립민속국악원, 내달부터 11월까지 ‘이야기 보따리’ 무대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은 어린이들의 국악나들이 ‘이야기 보따리’를 7월부터 11월(10월 제외)까지 매일 첫째주 토요일 선보인다.

이 프로그램은 3세 이상 유아들이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할 수 있는 국악극, 연희, 무용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통해 국악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한 국립민속국악원의 기획공연이다.

7월 4일에 첫 공연은 극단 마무현의 ‘꼬마장승 가출기’가 무대에 오르며, 솟대들과 마을을 지키는 꼬마장승이 김 부자택에서 쫓겨오는 맛있는 냄새에 이끌려 집을 떠나게 되면서 대문장군, 변소장군, 부엌장군 등 집지킴장군들을 차례로 만나 벌어지는 여정을 그린 놀이인형극이다.

관람을 원하는 사람은 전화(063-620-2324~5) 혹은 카카오톡 채널(상담원과 대화)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며, 사전예약을



통해 선착순 회당 100명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한지 건축·인테리어 소재 사업화

전통문화재단, 시·군·구 지역 연구 산업육성 기업지원 공모 선정

한지산업지원센터·에코섬유융합연구원·전주대 산학협력단과 협업

한국전통문화재단 한지산업지원센터는 중소기업벤처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0년도 시·군·구 지역 연구 산업육성 기업지원 공모사업에 ‘한지 건축·인테리어 산업 육성 지원사업’ 과제가 최종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3년간 국비 15억2000만원을 비롯해 시비 1억5000만원, 민간 2억1000만원 등 총 18억8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됐다.

이번 과제는 주관기관으로 전담 한지산업지원센터, 참여기관으로 에코섬유융합연구원,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나섰으며 세 기관은 앞으로 한지 건축·인테리어 소재 사업화를 위해 다양한 협업에 나서게 된다.

전담은 우리나라 고유 문화유산인 한지에 대한 연구를 통해 건축·인테리어 산업군에 적용 가능한 연구 결과물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한지 건축·인테리어 산업을 발전 시켜 나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지역 내 신규 일자리 창출은 물론 관련 산업의 성장을 도모할 것이라 피력, 공모사업의 선정을 끌어내는 데 주효했다고 전담은 설명했다.

/뉴시스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